공정거래위원회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11.2.(월) 10:00 배포 2026.11.2.(월) 8:30

공정위, GCR 평가 13년 연속 '매우 우수' 이상 등급

- 28개 경쟁당국 중 공동 3위, 아시아 경쟁당국 중 가장 높은 평가
- 카르텔 중심의 법집행 및 디지털 시장 대응에 대한 성과가 그 동력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'공정위')는 영국의 경쟁법 전문 매체인 GCR(Global Competition Review)이 10. 29.(목) 발표한 **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**에서 **'매우 우수(Very Good, 별 4.5개)' 등급**을 받았다.

GCR은 **2001년부터** 매년 각국 경쟁당국의 **직전 연도 성과**를 평가하여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. 평가는 경쟁당국이 **제출한 답변**(법 집행 실적, 직원 수, 예산 규모 등)과 변호사·교수 등 **전문가가 제시한 외부 의견**을 종합하여 이루어지며, 통상 **매년 하반기**(9~10월경)에 결과가 발표된다.

이번 평가는 **28개 경쟁당국**의 **2025년 법 집행 실적**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, 평가 등급은 최우수(Elite, 별 5개)를 최고 등급으로 하여 매우 우수(Very Good, 별 4.5개 및 4개), 우수(Good, 별 3.5개 및 3개), 보통(Fair, 별 2.5개 및 2개)의 **4개 등급**으로 구분된다.

공정위는 최우수 등급(Elite, 별 5개)을 받은 유럽연합(EU) 경쟁총국과 독일 연방카르텔청에 이어 **호주·프랑스·브라질 경쟁당국**과 함께 **공동 3위**에 올랐으며, 2014년 이후 **13년 연속 '최우수' 또는 '매우 우수' 등급**을 **유지**하고 있다.

< 참고 : 과거 GCR의 한국 공정위 평가 결과 >

연도	'13	'14	'15	'16~'17	'18~'25
평가	우수 (별 3.5개)	매우 우수 (별 4개)	매우 우수 (별 4.5개)	최우수 (별 5개)	매우 우수 (별 4.5개)

< 참고 : 2026년도 GCR의 각국 경쟁당국 평가 결과 >

등급		경쟁당국 (총 28개)
최우수 (Elite)	**별 5개**	EU, 독일 (총 2개)
매우 우수 (Very Good)	**별 4.5개**	**한국**, 호주, 프랑스, 브라질 (총 4개)
	별 4개	포르투갈, 스페인, 튀르키예 (총 3개)
우수 (Good)	**별 3.5개**	오스트리아, 벨기에, 칠레, 뉴질랜드, 폴란드, 대만, 남아공 (총 7개)
	별 3개	체코, 이집트, 그리스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필리핀, 루마니아, 싱가포르, 스위스 (총 9개)
보통 (Fair)	**별 2.5개**	케냐, 파키스탄, 우크라이나 (총 3개)

GCR은 공정위가 2025년 전체 과징금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지만, **카르텔** 분야를 중심으로 **높은 수준**의 법 집행 활동을 유지하였으며, **기업결합 시정조치**와 **동의의결**을 통해 **디지털 시장**에서도 의미있는 개입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.

특히, **카르텔 제재 건수**(제재 174건, 과징금 147건)가 전년 대비 **크게 증가**한 점(제재 83건, 과징금 52건), **평균 조사기간**도 2006년 이래 **최저치**를 기록했던 작년에 비해 **재차 대폭 단축된 점**(작년184일→올해131일) **등**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.

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결과가 "한국 공정위가 **오랜 기간 동안 공정하게 법집행**을 하며 쌓아온 **신뢰**가 반영된 것"이라고 평가했다. 또한 주 위원장은 "앞으로도 공정위는 **세계 경쟁질서**를 **선도**하는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**적법 절차 원칙**에 따라 **엄정**한 법집행을 이어갈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[붙임] 한국 공정위에 대한 GCR의 주요 평가

담당 부서	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	책임자	과 장 강승빈 (044-200-4315)
		담당자	사무관 류현욱 (044-200-431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한국 공정위에 대한 GCR의 주요 평가

□ **(총평)** 한국 공정위는 2025년에 **높은 수준**의 **집행 활동**을 **유지**하였으며(특히 카르텔), **디지털 시장**에서도 **유의미한 개입***을 **지속**하였음

* 기업결합 시정조치, 동의의결

※ 다만 금전적 제재 수준은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다고 지적

○ **(기업결합)** 2025년 **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**하였으며, 그 중 **3건**에 대해 **시정조치 부과**(금지조치는 없었음)

< 주요 성과 >

❶ **시놉시스**의 **앤시스 인수** 관련, 반도체 칩·광학·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의 가격 인상 우려에 따라 **일부 자산 매각** 조치 부과

❷ **지마켓-알리익스프레스 결합** 관련, ▲시장 쏠림과 고착효과, ▲진입장벽 등에 대한 우려에 따라 **소비자 데이터 공유**를 **금지**하는 **행태적 조치** 부과

❸ **티빙-웨이브**의 **합병** 관련, **2026년 말까지 기존 가격 수준**을 **유지**하도록 하는 **행태적 조치** 부과

○ **(카르텔) 과징금**은 **2,229억 원**으로 **전년**(2,193억 원)과 **비슷**하나 **의결**은 **174건**(과징금 부과 147건)으로 **전년**(83건, 52건) **대비 크게 증가**

< 주요 성과 >

❶ **이동통신 3사**(SKT·KT·LGU+)가 번호이동 순증 규모를 조정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억제하기로 합의하여 **963억 원**의 **과징금 부과**

❷ **평균 조사기간**은 184일에서 **131일**로 줄어 2006년 이후 **최단 기록 단축**

○ **(수직적 제한행위)** 의결 및 과징금 부과 건수 전년 대비 증가

< 주요 성과 >

❶ **던롭스포츠코리아**가 ▲대리점에 지정된 온라인·오프라인 **판매가격 준수**를 **요구**하고, **▲골프채 재판매**를 **제한**한 **행위** 등으로 **18억 원 과징금 부과**

❷ **의결 건수**(27건→45건), **과징금 부과 건수**(8건→13건) **증가**

○ **(제도개선)**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 마련, 보고서 발간 등

< 주요 성과 >

❶ **경쟁제한 규제 개선 과제**(22건) 마련

❷ **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**(CP) **운영·평가 체계 개편***

* 기존 6단계 등급 체계 → 3단계로 바꾸고, 정성평가·감점방식 도입

❸ **데이터 수집·활용 관련 경쟁 이슈**를 **분석**한 **「데이터와 경쟁」 보고서 발간**